

맞춤형복지 노하우 배우다

군산시 권역형 복지팀, 아산·세종시 방문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2017년 하반기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구,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월명동, 흥남동, 경암동 맞춤형복지팀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하고자 17일 아산시 온양3동과 세종시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운영3동과 아름동은 권역형 중심동으로 2016년부터 맞춤형복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 군산시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반동과 협업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협력 등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했다.

특히 세종시 아름동은 군산시 수송동, 나운2동과 함께 전국의 36개 선도지역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시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사업은 지난해 5개동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1개동이 추가로 추진하게 되며 내년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게 된다.



군산시 월명동, 흥남동, 경암동 맞춤형복지팀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하고자 17일 아산시 온양3동과 세종시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또한 하반기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3개 권역에서 9개동이 추진되어 1개 권역에 3개동을 묶어 권역별 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월명동은 해신동과 중앙동을, 흥남동은 삼학동과 신풍동을, 경암동은 구암동과 개정동을 권역으로 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시 건강한 숲 가꾸기 5억원 투입

10월까지 3개 사업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오는 10월까지 가지있고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무학산 등 주요 산림이 위치한 옹포·여산·금마·용안면 등 13개 읍면동 지역에서 어린 나무가꾸기 20ha, 큰나무가꾸기 50ha, 조림지가꾸기(풀베기) 280ha 등을 추

진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심은 후 5~10년이 되는 나무 중 병이 있거나 자람이 불량하거나 다른 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어릴 때 제거하는 사업으로 옹포면 제성리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된다.

또한 심은 지 10년이 경과한 숲의 불량한 나무를 간벌하여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가꾸는 '큰 나무가꾸기' 사업을 용안면 교동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금마면 서고도리 등 11개 지역에서 오는 9월까지 연 2회 조림지가꾸기(풀베기)를 진행해 최근 3년 내 조림한 임야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낸다.

이번 숲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에서 우량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경제림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수지 주변 산림에서는 수위함양, 수질정화와 같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지속가능 도시재생 고심

사업 추진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지난 17일 근대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017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기틀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안상욱 이사장(수원

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송석기 교수(군산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가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장인 정철모 교수(전주대학교)와 함께 발제자인 김현숙 교수(전북대학교)와 이복용 원장(군산역사문화연구원)이

지역의 정체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총괄책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는 "현재 전국 13개 선도지역이 국비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선도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군산시가 도시재생의 선도 주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장현 기자

하림 신메뉴 닭갈비 2종 선보여

뼈있는·뼈없는 상품 출시 100% 국내산 닭다리살 사용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GS수퍼마켓과 공동기획으로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 신제품으로 손질되어 편하게 즐기는 '뼈있는 닭갈비'와 '뼈없는 닭갈비'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림이 엄선한 100% 국내산 닭다리살이 손질되어 닭갈비 전용소스와 구이용 소금이 한 팩에 담겨 있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닭고기를 손질하거나 별도의 소스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어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하림 '자연실록 뼈있는 닭갈비'

하림 '자연실록 뼈없는 닭갈비'

는 야외에서 숯불구이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닭고기가 손질되어 편하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봉된 닭갈비 전용소스와 구이용 소금으로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간편함을 추구하는 캠핑족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은 16일 전북지역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석규(92)옹의 자택을 방문, 대통령 위문품을 전수하고 생신을 축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현장행정 야장 폭염속 근로자 격려·의견 청취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이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행정에 나섰다.

정현을 시장은 17일 오전 여산면에 소재한 현대요업(주)을 방문해 1,200여명 이상인 가마에서 벽돌을 굽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 시장은 현대요업(주) 김 병우 회장과 기업으로 사함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현대요업(주) 김병우 회장은 "시장 운영이 바쁘게도 회사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해 주신 근로자들의 사기와 자존감이 많이 상승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건설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50여명의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요업(주)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기업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익산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요업(주)은 여산면에 1985년 6월 설립됐으며, 천연재료인 고품도, 황토, 점토, 장석, 도석 등으로 구워낸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내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 위문

서부보훈청,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대통령 위문품 전수

전북서부보훈지청은 16일 전북지역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석규(92)옹의 자택을 방문, 대통령 위문품을 전수하고 생신을 축하했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하여 독서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표창을 서훈받았다.

이우실 지청장은 "일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 독립의 초석이신 애국지사께서 더욱 건강에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국민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매일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약30여명에게 제수비, 사망조위금, 가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